

공유경제 · ESG 실천 아이디어 발굴

전북형 공유경제 인식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월 14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ESG 실천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전북형 공유경제 인식확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유경제는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물건, 공간, 서비스 등을 함께 활용해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유경제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원 재 활용과 지역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ESG(Environment) 실천 △기타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 창출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다.

공유경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최대 5명으

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아이디어 제안' 또는 '솔루션' 가운데 한 부분을 선택해 스톱영상이나 제안서 형태로 응모하면 된다.

심사는 목적 부합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22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6건, 입선 12건으로 진행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진원 공동체정책팀(063-711-2127)으로 하면 된다.

경진원 관계자는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ESG를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내 시·군 선도기업 현장 중심 상생 협력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 개최... 우수기업 견학 · 경영 애로 청취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시·군 선도기업 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1일 전주·임실·순창·남원 지역 선도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를 열고 기업 간 협력 확대와 지역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수 선도기업인 (주)리뷰터와 (주)나노솔루션 익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리뷰터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유·무선 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8년 선도기업에 지정됐으며, 현재는 명예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나노솔루션은 탄소나노튜브 및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3년 선도기업에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우수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각 기업의 기술 노하우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벤치마킹과 정보 교환이 이뤄져 참석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주·임실·순창·남원 지역 교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시·군 경계를 넘어 산업 정보와 지역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간 공동 대응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와 규제 개선 사항을 전북테크노파크에 건의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R&D) 지원과 자율프로그램 등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 지원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협의회는 지역 선도기업들이 우수기업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발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도내 선도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1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유신 차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기업 임직원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높



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실무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철저한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교육이 지역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29일 '야, 춘기야!' 가족 연극 무료 공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족 연극 공연을 마련하고 무료 관람객을 모집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새울림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 '야, 춘기야!'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을 각색한 연극으로, 사춘기 딸과 엄마가 겪는 갈등과 오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가족극이다.

공연은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완주문화관광재단이 마련했다.

관람 신청은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또는 전화(063-716-2222)를 통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며,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공사는 전기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나눔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보이스피싱 막아 고객 자산 보호

김제신협 직원, 피해 예방 공로로 김제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김제신협 남○○ 부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제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김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김제신협 남 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제신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에 택시기사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부안신협으로 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김제에도 신협이 있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한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TM을 잘못 조작하면서 현금이 '비밀금' 상태로 계류돼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형사과와



김제신협 남 부장, 직원 2명은 신속한 공조에 나섰다.

남 부장은 CCTV 영상 확보와 ATM 거래 정지, 현금 확보 등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전화금융사기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지원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 고객의 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김제경찰서는 남 부장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농협은 지난 20일 총 1,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읍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73곳에 설치된 에어컨 116대에 대한 전문세척 작업을 완료했다.

정읍농협, 경로당 · 마을회관 에어컨 전문세척 지원

여름철 폭염 대비 1160만원 예산 투입 116대 에어컨 작업 완료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에어컨 전문세척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정읍농협은 지난 20일 총 1,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읍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73곳에 설치된 에어컨 116대에 대한 전문세척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으며, NH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지사장 고영훈) 전문 인력이 참여해 에어컨 내부의 먼지와 곰팡이,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질을 개

선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정읍농협은 이번 사업이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